

영남 북부 강안 지역의 지역성과 백과적 학문 전통

박 인 호*

- I. 머리말
 - II. 강안 지역의 지역성과 학문적 특징
 - III. 영남 북부 강안 지역의 백과적 편찬물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영남 북부 강안 지역의 학문적 동향을 살펴보면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백과적 학문 경향에 대해 지역성과 결합하여 설명하려는 데에 연구 목적이 있다.

영남 북부 지역은 자연지리적 특징으로 북고적, 은거적 측면이 부각되었지만 여러 고개를 통해 다른 지역의 문물이 가장 먼저 전래되던 지역이다. 도회의 관점에서는 궁벽한 곳이지만 경기와 충청에서 내려오는 신문물이 가장 먼저 집산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전통시대에 이 지역은 물길과 육로를 통해 각종의 신문물이 가장 먼저 도달되던 곳이다.

이에 따라 낙동강 북부의 강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기풍이 있으며 학문적으로는 회통적, 융합적 성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교양학부 명예교수 / inhopark@kumoh.ac.kr

외부의 문물을 백과적으로 소개하거나 외부 지식을 축약하는 백과전서학이 발전하였으며, 역사책을 간략하게 축약하는 방식이 유행하게 되었으며, 지역의 인물을 정리하는 보학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유형별로 정리한 백과사전류, 간략하게 정리하는 사략형 사서, 다양한 형식의 보학서 등이 편찬되는 양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 주제어

낙동강, 강안지역, 백과전서학, 사략형 사서, 보학서

I. 머리말

이 글은 영남 북부 강안 지역의 학문적 동향을 살펴보면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백과적 학문 경향에 대해 지역성과 결합하여 설명하려는 데에 연구 목적이 있다.

먼저 낙동강의 상류 지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택리지』에 의하면 낙동강은 潢池에서 발원하여 예안에 이르고 동쪽으로 굽었다가 다시 서쪽으로 흐르면서 안동 남쪽으로 흐르며 용궁과 함창 경계에 이르러 비로소 남쪽으로 굽어지면 낙동강이 된다.¹⁾ 기존의 낙동강에 대한 인식은 주로 상주의 옛 이름인 낙양의 동쪽이라는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상주 이하를 대상 권역으로 하였으나 낙동강의 원류는 태백산 황지천에서 출발하여 철암천과 합류하면서 시작되며, 이어 봉화를 지나 안동에서 반변천과 합류하며 풍산을 지나다가 예천에서 내성천, 금천과 합류하고 문경에서 영강과 합류하며 상주에서 병성천과 위천이 합류한다.²⁾ 영남 북부 지역의 낙동강은 여러 갈래의 소하천들을 아우르면서 확장되어 갔다. 그러므로 낙동강이 圍繞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확장된 재인식이 요구된다.

또한 영남 북부 지역은 자연지리적 특징으로 은거적 측면이 부각되었지만 영주-단양의 죽령, 예천-청풍의 저수령, 문경-충주의 조령(문경새재), 상주-보은의 화령 등의 고개를 통해 다른 지역의 문물이 가장 먼저 전래되던 지역이다. 도회의 관점에서는 궁벽한 곳이지만 경기와 충청에서 내려오는 신문물이 가장 먼저 집산되는 곳이기도 하다.

전통시대에 이 지역은 물길과 육로를 통해 각종의 신문물이 가장 먼저 도달되던 곳이다. 같은 북부의 안동이나 예안, 혹은 중부의 김천, 선산, 성주 지역이라도 강안 지역에서 산출되는 학문은 강의 내륙 지역의 것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기풍이 있다. 특히 영남

1) 『택리지』, 조선광문회, 1912, 15쪽.

2) 신경준, 『도로고』 권4, 「사행지로」, <수로>, 규장각; 『여암전서』, 경인문화사, 1976.

북부의 낙동강 강안 지역은 경기와 충청과 인접하면서 영남 중부나 하부 지역에 비해 백과적 학문 풍토가 두드러진다.

이로 인해 외부의 문물을 백과적으로 소개하거나 외부 지식을 축약하는 백과전서학이 발전하였으며, 역사책을 간략하게 축약하는 방식이 유행하게 되었으며, 지역의 인물을 정리하는 보학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문 경향은 크게 정의한다면 백과적 학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봉화(춘양, 영주), 안동(예안), 예천(용궁), 상주(문경, 함창)으로 권역을 나누되 특히 낙동강의 강안을 따라 만들어진 會通的 문화 전통을 그 지역에서 산출된 백과적 저술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영남 북부 강안 지역의 학문적 특수성과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강안 지역의 지역성과 학문적 특징

1. 인적 · 물적 유통

영남 북부 낙동강 강안 지역의 도로와 물류에서의 유통 현상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로망이 발전하지 못하였던 고려와 조선전기에 세곡과 물품의 이동은 낙동강을 통하였다.³⁾ 그런데 낙동강의 물류를 보면 강의 하류인 부산에서 배가 올라와 장시를 이루는 곳이 낙동진이다. 낙동진은 북부 강안 지역의 대표적인 나루터였으며, 대형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강의 종점이었다. 여기서부터는 강이 얕아 큰 배가 다니지 못하고 소형 배로 도남동과 중동면을 연결하는 무임포와 예천 용궁면과 문경군 영순면을 연결하는 하풍진까지 나아갔다.

육상 도로망의 경우 영남 북부 강안 지역은 영남대로, 영남좌로, 영남우로가 관통하는 통로였다. 조선후기의 도로망을 보면 서울에서 동남쪽

3) 김상호, 「고지도로 본 상주의 역사문화」, 『경상도 상주』, 민속원, 2016.

으로 부산에 이르는 제4로에서는 서울에서 충주를 거쳐 鳥嶺 東華院을 지나 재를 넘어 문경에 이르고 新院站, 幽谷驛, 德通站을 지나 洛東津에 이르렀다. 德通站에서 동남쪽으로 安溪驛과 比安을 거쳐 군위와 영천으로 가거나 新院站에서 동쪽으로 醴泉을 거쳐 寧海로 나아갔다. 竹嶺에서 豐基와 榮川을 거쳐 奉化나 禮安으로 나아갔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통영에 이르는 제5에서는 幽谷에서 咸昌과 尙州를 지나 성주, 김산, 선산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육상의 유통망은 인적인 교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영남 남인과 기호 남인의 인적 교류와 관련하여 京南의 경우 사상계의 李瀾(1681-1763), 安鼎福(1712-1791), 관료계의 蔡濟恭(1720-1799) 등이 영남 남인과의 주요 접점이었다.⁴⁾ 이들은 영남 지역 인사와의 교류를 통해 학문적·정치적 외연을 확장해 나가려 하였다.

李瀾의 경우는 상주 산양현(현 문경시 산북면)의 權相一(1679-1759)과 오랫동안 교유하였다. 이익이 퇴계와 관련된 글과 저술에 관심을 보이자 권상일은 적극적으로 퇴계학을 소개하고 있다.⁵⁾ 이익은 숙부 李殷眞의 딸과 예천 출신의 영남 남인 출신인 檀溪 金海一(1640-1691)이 결혼하자 그 아들인 鶴阜 金履萬(1683-1758)과 나이가 서로 비슷하고 뜻도 맞아 어려서는 함께 놀고 자라는 의기가 투합하였다. 학고가 사망하자 尙州에 있던 학고의 아들 金相錫이 큰 아들 金維를 이익에게 보내어 묘갈명을 청하고 있다.⁶⁾ 김이만의 사위로 안산에 살던 서화가인 烟客 許佖(1709-1761)⁷⁾과 선산에 기반을 둔 전주 최씨로 인재 최현의 후손인 崔

4) 이수진, 「조선후기 嶺南과 京南의 제후」,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 상, 역사아우성교 수정년퇴직기념논총간행위원회, 창작과비평사, 1990; 『영남학과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김문식, 「조선후기 경남과 영남의 교류 양상 - 영양 주실의 한양조씨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15,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5) 안병길, 「성호 이익의 퇴계와 영남에 대한 관심 - 권상일과의 편지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18, 한국실학학회, 2009.

6) 『星湖先生全集』 권65, 「墓誌銘」, <金執義鶴阜子墓碑銘 并序>.

7) 『星湖先生全集』 권30, 「書」, <答許進士 佖 戊寅>.

光岳(123-1773)이 있다. 이들의 행동반경이 예천, 제천, 영주 등 영남 북부 지역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성호학의 동전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

安鼎福의 경우 영남 三老로 추앙받던 대구 옷골의 百弗庵 崔興遠(1705-1786), 안동 소호의 大山 李象靖(1711-1781), 예천의 南野 朴孫慶(1713-1782), 그리고 이들을 잇는 차세대 영남의 영수인 상주 우산의 鄭宗魯, 1738-1816)와 상주 은척의 損齋 南漢朝(1744-1809) 등과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다.⁸⁾

蔡濟恭(1720-1799)은 영조 후반과 정조대 남인의 영수였다. 삼정승을 역임한 채제공은 영남 지역에서 상경한 영남 남인들의 대표적인 정치적 후견인이었다. 그 외에 낙향하여 상주 외답리 노실에 거처를 마련한 李萬敷(1664-1732), 효령대군의 사당을 중수하기 위해 일시 상주 貯皓菴에 머물렀던 李衡祥(1653-1733) 등도 상주에 자리를 잡아 이들로부터 중앙 학계의 학풍이 이입되어 강안 지역 학문을 발전시키는 발판이 되었다.

영남 북부 지역 학계는 京南과의 교류 외에도 죽령을 넘어 충청도 지역과의 교류도 있었다. 단양·제천과의 교류로 예안 김씨 김해일과 제천 지역 남인과의 교류,⁹⁾ 활재 이구를 중심으로 한 괴산 지역과의 교류가 있다.¹⁰⁾

한편 상주와 예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노론계가 강고하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대표적인 서인계 가문이 존재한다. 상주의 대표적인 노론 가문으로는 함창의 인천 채씨 가문(채몽정, 채하징, 채지면, 채석주), 상주의 창령 성씨 가문, 평산 신씨 가문이 있다.¹¹⁾ 특히 봉화 법전에는 진주 강씨 소론 가문 등이 있는데 이 집안

8) 김학수, 「안정복과 영남학인의 교류 - 18세기 중후반 '경남'과 '영남'의 지식문화적 교감」, 『장서각』 48,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

9) 박인호 「조선중기 제천지역 사족의 형성」, 『지역문화연구』 1, 세명대, 2002; 『제천지역사연구』, 이회문화사, 2005.

10) 박인호, 「활재 이구의 시대인식과 사회활동」, 『활재 이구와 식산 이만부의 생애와 사상』, 문경시, 2013; 『조선시기 사상계의 동향과 현실인식』, 영한, 2023.

11) 이연숙, 「17-18세기 영남지역 노론의 동향」, 『역사와 실학』 23, 역사실학회, 2002.

은 기호 지역에 있는 소론 가문과 교류가 활발하다.¹²⁾ 서인 가문은 해당 지역의 남인 가문이 주도하는 향촌 사회에서 길항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상주 출신의 정경세가 송준길의 사위가 된 것도 이러한 인적 교류망이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적·물적 유통망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사상적으로 회통성과 교류성이 두드러지며, 이것은 이 지역에서 산출한 학문적 성과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2. 백과적 편찬물의 산출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영남 지역에서 편찬된 史部 자료로 사부 편년류 18종, 사부 전기류 62종, 사부 잡사류 56종, 사부 지리류 80종, 사부 정법류 11종이 제시되었다.¹³⁾ 그 가운데 낙동강 강안 지역의 사부류에서는 연표형·사략형 사서의 편찬, 강목과 춘추 계열의 역사서 편찬, 증인증을 포함한 다양한 인물서의 편찬, 유서와 사찬읍지의 특징적 편찬, 다양한 일기류의 편찬 등의 특징이 있음이 지적되었다.¹⁴⁾

영남 북부의 강안 지역에서는 조선 전기 이래 목판 간행이 활발하였다. 조선 전기 안동과 예안을 제외한 영남 북부 지역에서 간행된 책판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¹⁵⁾

채광수 외, 「창녕성씨 청궁공파의 상주 정착과 노론계 원우 건립 활동」, 『조선시대사학보』 79, 조선시대사학회, 2016.

송석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의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79, 조선시대사학회, 2016.

박소희, 「17-18세기 상주지역 남인·노론계 서원의 인적구성 분석」, 『민족문화논총』 81,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22.

12) 김윤조, 「18세기 영남과 기호 소론가의 학문과 문학 교류」, 『한국학논집』 53,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3.

13) 박인호, 「영남 지역 사부 고문헌 자료의 번역 현황과 과제」, 『영남학』 1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14) 박인호, 「낙동강 강안 지역의 사부류 편찬과 역사학적 의의」, 『영남학』 8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2; 『강안학이란 무엇인가』, 정우락 외, 역락, 2023.

풍기 - 杜詩, 治家節要, 竹溪志, 族譜, 學求聖賢, 大赤壁賦

상주 - 懶齋集, 將鑑博議, 揖翠軒集, 李相國集, 名賢詩話, 朱晦庵集, 太平通載, 李太白文集, 及菴集, 食療纂要, 新刊李相國集, 日記, 陣書, 漢都十詠, 虛白堂集, 進獻心圖, 垂老十詠, 詳刑要覽, 休巖集, 拙齋集, 仁川世稿, 通鑑總論, 警民編, 忠孝堂家禮

영주 - 孟子大文, 詩大文, 書大文, 春秋大文, 文章軌範, 入學圖說, 顏樂堂集, 草書法, 四箴大字法, 十勝亭屏風書, 聖學十圖, 夙興夜寐箴, 字訓, 童蒙須知, 千字

예천 - 通鑑, 歐蘇手簡, 東人文, 詩傳, 佛氏辨說, 東人詩, 丹溪纂要

經部の 經전류와 集部の 문학서가 일반적이지만 『태평통재』, 『식료찬요』, 『상형요람』 등 백과적 저술이 일찍부터 간행되고 있다. 이를 보면 이 지역은 외부의 학문을 수용하는데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중기 이후 이 지역에서는 외부의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간략하게 편찬하거나 종합하여 편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간략하게 하는 방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기존의 책을 축약하는 정리를 들 수 있으며, 종합하는 방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외부 문명에 대한 백과적 정리를 들 수 있다. 기존 책을 축약하는 정리 방식인 사략류, 유편류 등도 지식의 전달에 목적을 두었다는 점에서 백과적 편찬물의 한 부분과 같으므로 모두 백과적 문물의 유산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영남 북부 강안 지역에서 편찬된 백과적 저술을 낙동강의 흐름에 따라 지역별로 정리하였다.

15) 『고사촬요』, 국립중앙도서관 및 일본 내각문고본 필사본.

<영남 북부 강안 지역에서 신출된 백과적 저술>

지역	편찬물
봉화 [춘양, 영주]	『歷代史選』·『史補略』(李時善, 1625-1715: 내성천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 풍정) 『性理類選』, 『綱目心法』(朴承任, 1517-1586: 서천 영주시 귀내, 한정마을) 『東史纂要』(吳澐, 1540-1617: 서천 영주시 조암동) 『標題音註東國史略』(柳希齡, 1480-1552: 1524-1529년 영주 군수 재임시 간행) 『再造藩邦志』(申晸, 1613-1653: 1693년 영주 간행)
안동 [예안]	『東史類編』(李宗岳, 1726-1773): 와부탄 안동 법흥리) 『海東文獻總錄』(金佺, 1597-1638: 반변천 천전리) 『中國古今歷代沿革之圖』(權渠, 1672-1749: 풍산 가일리) 『東史節要』(李惟樟, 1625-1701: 풍산 상리) 『少微家塾点校附音通鑑節要』(江贊 찬, 劉剡 교열, 洪履祥 간행: 1603년 안동 간행)
예천 [용궁]	『文蔭譜』·『縉紳八世譜』(朴周大, 1836-1912: 내성천 하리면 대제동) 『大東韻府群玉』(權文海, 1534-1591), 『海東雜錄』(權鼈, 1589-1671: 내성천 용문면 죽담리) 『東國通志』·『勉學類鑑』(朴周鍾, 1813-1887: 내성천 용문면 금당실) 『東書彙纂』·『譜學通編』·『鮮史總略』(金庭植, 1862-1928: 내성천 용문면 구계리) 『東國十志』(裴象鉉, 1814-1884: 예천 입향조)
상주 [문경, 함창]	『彙纂麗史』·『東國通鑑提綱』·『海東姓苑』(洪汝河, 1620-1674: 영강 문경 영순면 울리) 『歷代明鑑』(洪貴達, 1438-1504: 이안천 상주시 함창읍 여물리) 『昭代名臣行蹟』(鄭道應, 1618-1667: 이안천 외서면 우산리) 『道東編』(李萬敷, 1664-1732: 병성천 상주시 외답동)

Ⅲ. 영남 북부 강안 지역의 백과적 편찬물

1. 문물과 제도를 다룬 유서의 편찬

영남 북부 지역은 당시 기호 지역과는 달리 문화적으로 신진 문물을 수용하는데 있어 지체 현상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체 현상은 앞서서 새로운 문물을 창안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었다. 특히 영남 북부 강안 지역에서는 외부의 문물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를 분류하고 종합하는 학문적 풍토가 있었다.

1) 영주시 서천의 귀내(고현동)와 한정마을에서는 朴承任(1517-1586)이 『性理類選』, 『綱目心法』 등 일련의 성리학에 입각한 백과 저술을 편찬하였다. 영주 출신의 박승임은 이황 문인이면서도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관료 생활을 하였다.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여러 선현들의 설을 정리하여 책을 편찬하는데 노력하였다. 만년에는 서천 강변의 夏寒亭에서 강학을 통해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¹⁶⁾

『성리유선』은 방대한 『성리대전』 70권을 10권 5책으로 간결하게 정리한 책이다. 『성리대전』의 13개 조목을 8개 조목으로 축소하되 각 조목은 총론을 앞세우고 장을 나누어 정수가 되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권1 이기, 권2 이기, 권2 이기, 귀신, 성리, 권3 성리, 학, 권4 학, 성현, 권5 성현, 역대, 권6 역대, 권7 역대, 권8 군도, 치도, 권9 치도, 권10 치도로 분류하여 천도의 본원에서부터 경세의 방략에 이르기까지 정리하였다.¹⁷⁾

『강목심법』은 목록 1권을 포함하여 18권 9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16) 김학수, 「박승임의 학문적 지향과 16세기 영주지역의 ‘집단지성」, 『영남학』 70,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9.

17) 박승임, 권영대 역, 『국역 성리유선』, 소고선생기념사업회, 2005.

권은 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권1-2는 군도와 지도, 권3-4는 서한, 권 5-6은 도덕과 인륜, 권7-8은 경세, 권9는 성현, 권10은 공맹과 주자, 권11은 제자, 권12-13은 동한에서 송, 권14-15는 이기와 오행, 권 16은 요순에서 춘추전국, 권17은 원대 성리학에 대한 명제를 정하고 이에 관련된 설명을 붙이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¹⁸⁾

박승임의 저술은 성리학의 여러 분야의 명제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백과사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결한 설명을 통해 후학들이 관련한 명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안동의 川前里(내앞마을)에서는 金焦(1597-1638)가 『海東文獻總錄』을 편찬하였다. 김휴는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가장 큰 지류 가운데 하나인 반변천 인근에서 성장하였는데 낙동강 중류의 인동 출신 여현 장현광을 스승으로 모셨다. 김휴는 장현광의 권유로 고문헌 해제집인 『해동문헌총록』을 저술하였다. 『해동문헌총록』은 우리나라 고문헌에 대한 최초의 서지적 연구서이며, 우리 문화에 대한 자존의식이 반영된 책이었다. 또한 『해동문헌총록』은 비록 서지학 분야를 다루었으나 각 분야의 책을 모두 다루어 백과전서적 형태를 띠고 있다. 게다가 영남 중북부 지역의 여러 집안을 찾아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이 책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편찬된 서적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다.¹⁹⁾

그런데 김휴는 기본적으로 유학적 관점에서 학술사를 보고 있다. 김휴는 옛 시기 기록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판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편년통록』, 『편년강목』, 『왕대총록』 등에게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에 들어와 유교적 관점에서 편찬된 책에 대해서는 크게 칭송하면서 법도와 인류에 대한 일을 다 싣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필원잡기』, 『용재총화』, 『추강냉화』 등의 필기류에 대해서는

18) 박승임, 박찬우 역, 『국역 강목심법』, 소수박물관, 2014.

19) 박인호, 「해동문헌총록에 나타난 김휴의 학문세계」, 『선주논총』 9, 금오공대 선주문화연구소, 2006; 박인호 편, 『여헌학의 전개와 수용』, 보고사, 2010.

교화적 측면에서 평가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김휴는 신이하거나 불교적 사적을 전하는 책에 대해 그 정보는 제공하고 있으나 유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그에 반해 조선 건국 이후의 유교문화의 성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한편 『해동문헌총록』은 사학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현재 전하지 않는 책에 대한 기록을 통해 조선 전기 역사학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 고려와 조선 초기에 나온 책들에 대한 정보는 그 책을 대상으로 다수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조선 전기 사학사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해동문헌총록』은 사학사적으로 사료학에서의 첫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전기 편찬된 책을 소개하면서 단순히 책명을 적은 것이 아니라 집필한 인물을 중심으로 책의 성격을 명확히 한 것은 일종의 학술사적 문제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²⁰⁾

3) 반변천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와부탄 인근의 강가에 臨淸閣이 있으며 고성 이씨가 세거하였다. 안동의 고성 이씨 출신 가운데 주목되는 인물은 虛舟 李宗岳(1726-1773)이다. 이종악은 고성 이씨 임청각의 종손으로 특정 학맥의 계승을 표방하지는 않았으나 갈암 이현일 - 밀암 이재 - 대산 이상정의 학통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이상정 문하의 유장원, 유도원 형제와 밀접하게 교류하였다.²¹⁾ 古書, 彈琴, 花卉, 書畫, 舟遊의 五癖으로 유명했던 이종악은 정온의 5세손으로 상주에 살던 鄭璞, 근기 남인계로 안산에 살았던 許佖 등과 書畫를 통해 깊이 허교하였다. 이종악의 낙동강에 대한 풍류의식은 『虛舟府君山水遺帖』에 묘사되어 있다.²²⁾ 이종악에게서 창작 활동의 근간이 되었던 것은 낙동강이었다.

20) 박인호, 「김휴의 해동문헌총록 편찬과 사학사적 의의」, 『경와 김휴의 학문과 활동』, 한국국학진흥원, 2024.

21) 김학수, 『허주 이종악의 삶과 풍류』,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22) 『虛舟 李宗岳의 山水遺帖 : 落水에 배를 띄워 놀다』, 이회문화사, 2003.

그런데 이종악은 백과사전으로 『東史類編』을 편찬하였다. 아들 李宜秀가 쓴 <선부군행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선비로서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나라 역사사실을 알아야 함에도 근세의 유자들은 의례 우리나라 역사학을 읽지 않는다. 내가 이점을 매우 병통으로 여겨 삼국사와 여지승람 및 동현의 시화와 야언과 찬요등 여러 책들을 갈래를 나누고 비슷한 것들을 모아서 보기에 편하게 하여 東史類編이라 하였으니, 대개 만년의 정력은 모두 이 책에 있다”고 하였다. 무릇 우리 동방의 인물과 노래와 풍속, 역대 왕조의 치란과 흥망의 발자취가 요연히 밝혀지지 않음이 없다. 갈래와 항목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탈고에 미치지는 못하였는데 不肖 孤子가 한 본을 정사하여 선친의 여러 친구 분들에게 나아가 교정을 하여 남기신 뜻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慌忙한 나머지 아직 이 일을 할 겨를이 없으니 더욱 절실히 통탄스럽다.

이를 통해 본다면 『동사유편』은 완전히 완료된 형태가 아니라 초본의 형태로 보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이종악본 『동사유편』²³⁾은 고려대 석주문고에 3권 3책만 존재한다.²⁴⁾ 이종악의 『東史類編』은 동국의 역사와 문물에 대한 간략한 사전식 편찬물이다. 삼국 이전은 국가별로 간략히 정리한 반면 삼국 이후는 이, 호, 예, 병의 6부 유편 체재로 나눈 다음 관련 주제를 두어 삼국과 고려의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다. 책3에 병부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형부와 공부를 다른 별도의 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23) 『동사유편』, 고려대 도서관 B3 A153 1.

24) 『동사유편』에 대해 장서각에서는 함양박씨가에서 나온 『東史類編』을 이종악의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오류이다(디지털장서각 해제 참조). 장서각본 『동사유편』과 동일한 것의 완본은 국립중앙도서관(한고조50-49)에 있으며 장서각본은 낙질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본은 前編은 1-5책(권1-8)의 國乘編과 6책(권9)의 地理編, 後編은 7-9책(권9-11)의 君道編과 10-12책(권12-15)의 臣道編과 13책(권16)의 人事編, 續編은 1-2책(권1-2)의 萬物編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내용으로 보면 이종악본 『동사유편』과는 다른 책으로 서인 계열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 책1: 東國沿革圖, 九夷·九韓, 三朝鮮(衛滿朝鮮), 四郡. 二府, 三韓(馬韓, 辰韓, 卍韓), 中國歷代甲子紀年
吏部; 官職, 銓選, 諫官, 論駁, 諷諭, 被讒, 外官, 年限, 相避法, 致仕, 薦舉, 婦人封爵, 宦寺, 權姦, 鄉吏
戶部; 地理志, 地名, 都邑, 土田, 賦稅, 堤堰, 親耕, 勸農, 牛耕, 豐年, 凶年, 倉庫, 頒祿, 鹽倉, 賑恤, 糶糴, 戶口, 民弊, 賦稅, 姓氏(附賜姓), 人物, 忠臣, 孝子, 烈女, 人物化生, 投化, 獻議, 奴婢法, 倡優, 市肆, 錢貨, 物產, 牧場, 雜畜
- 책2: 禮部上; 祭祀, 宗廟, 文廟, 從祀, 家廟, 陵寢, 國號, 諡法, 追諡, 御諱, 誕日, 歷年, 正朔, 親入朝, 奉使他國, 事大
- 책3: 禮部下; 他國來使, 交聘諸外國, 境內諸小國, 朝賀, 朝會, 陳慰, 納妃, 同姓婚, 立嗣, 國恤, 喪制, 追服, 學校, 書冊, 文學, 史記, 王旨, 訓要, 印璽, 音樂, 宴遊, 饗老, 許養, 給暇, 遊畋, 巡幸, 微行, 雜術, 醫藥, 畫士, 漏刻, 曆法, 怪異, 災異, 水災, 旱災, 蟲災, 霜雹雹災, 風災, 飄風, 火災, 伐木, 科擧, 賓貢, 服色, 風俗, 通譯, 方言, 雜字, 秘籙, 童謠, 訛言, 佛法, 寺刹, 妖僧, 斥佛
- 兵部; 關防, 驛院, 兵亂, 征伐, 外寇, 內亂, 叛逆

『동사유편』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삼국과 고려시대의 일을 정리한 일종의 항목별 백과사전인 셈이다. 당시 서울에서는 1770년(영조 46) 8월 우리나라의 문물제도에 대한 전고를 모아 주제별로 분류한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를 간행하였다. 이 책은 당시 저명한 인사들을 모아 관부에서 주도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종악의 『동사유편』은 비롯한 시기에 관부에서 나온 『동국문헌비고』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면서도 6부 체제 속에서 개인이 사찬으로 유형별 제도사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²⁵⁾ 1책의 「호부」 인물조에서 궁예와 견훤을 수록하면서 ‘入土賊’으로 주기한데서 보이듯이 유교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人物化生에서 신이한 탄생을 삭제하지 않고 적고 있어 주제별로 자료를 정리해 두려는 의식이 강하였다. 2책의 「예부」 역년조에서는 삼국사에서 모두 薨年에 바로 개원한 것은 예에 어긋났으나

25) 개인이 국조의 전고를 모아 분류하여 간행하는 것은 이 시기의 학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만승의 『동고』도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기 직전에 나왔다.

기사마다 서로 어긋나는 것이 있어 실제에 따라 적는다²⁶⁾고 하여 실용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역사지리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면 삼국 이전의 역사편은 증거도 없고 여러 책에서 관련된 자료를 끌어 모아 대략만을 적었기 때문에 분류 중에 넣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기하면서²⁷⁾ 이 시기의 서술은 시간 순으로 적었다. 구이·구한에서 시작하되 삼조선으로 단군, 기자, 위만을 배치하고 사군과 이부를 적고 있다.

단군의 기원은 『동국통감』의 唐堯 25년 戊辰 설을 따르면서 요와 동시기에 병립했다는 주장을 비판한다. 그리고 당 요 무진에서 상 무정 을 미까지의 1048년인데 이는 향국의 연대를 의미한다는 주장을 지지하였다. 기자조선은 요하 이동, 한강 이북에 비정하였다. 위만을 거쳐 한사군으로 이어져 낙랑군=평양, 임둔군=강릉, 현도군=함흥, 진변군=요동의 동쪽이라고 비정하고 있다. 삼한으로 분립하면서 익산에 도움을 둔 마한은 백제에 의해 소멸되고, 경주의 진한과 김해의 변한은 신라에 항복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삼한에 대해서는 마한=백제설을 주장한 권근과 한백겸의 주장을 수록하고 있다. 고구려는 처음 요동의 북쪽에서 시작하였다가 점점 동진하여 패수에 이르렀던 것으로 적고 있다.

책3의 「예부 하」 <교빙제외국> 조에는 왜국, 말갈국, 발해국, 거란국, 여진국, 금국, 몽고국, 철리국, 불내국, 대식국, 동진국, 흥요국, 마팔국, 유구국을 들고 있다. 말갈은 古肅愼, 발해는 粟末靺鞨[高句麗 別種], 거란은 古東胡, 여진은 勿吉, 금은 生女眞[東女眞]에서 나온 것으로 적고 있다.

<경내제소국> 조에서는 북방 경내 소국으로 부여국(구도 미상, 함경도 북변), 비류국(평안도 성천), 행인국(평안도 영변), 읍루국(함경도 중), 북옥저국(함경도 북), 동옥저국(함경도 서), 숙신국(함경도 북변), 선비국(橫山 南, 胡地), 양맥국, 개마국(평안도 서변), 구다국(개마국 서), 낙랑국(미상), 갈사국(갈은수변), 조나국(미상), 주나국(미상), 예국(강릉), 맥국(춘

26) 『동사유편』 권2. “三國史 皆薨年爲改元 非禮 然記事頗有牴牾 據實書之”

27) 『동사유편』 권1. “三國以前 史書無徵 雜採諸書 只記大略 故不爲并錄於分類中”

천), 황용국(평안도 용강)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함경도와 평안도 일대에 비정하고 있다. 북방의 초기 국가들을 경내의 국가로 간주하고 있는 점은 후일 영남의 유학계 역사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한편 남방 경내 소국으로 가락국(김해), 고령가야국(함창), 대가야국(고령), 성산가야국(성주), 소가야국(고성), 아라가야국(함안), 이서국(청도), 우시산국(거칠산국 접경), 거칠산국(동래), 음즙벌국(안강), 실직국(삼척), 압독국(경산), 비지국(미상), 다벌국(미상), 초팔국(초계), 소문국(의성), 가라국(간성), 골포국(창원), 칠포국(미상), 고포국(미상), 골벌국(영천), 감문국(개령), 사량벌국(상주), 북대방국(강원도), 남대방국(남원), 탐라국(제주), 우산국(울릉도), 태봉국(철원), 후백제국(전주)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지리인식은 『동국통감』 이래의 전통적인 국가관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진변은 요동에 비정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고대의 군소 국가들은 경내에 소재한 국가로 비정하여 우리의 역사 속에 편입해 놓고 있다.

4) 예천의 지역적 환경은 안동권의 유학을 받아들이면서도 鳥嶺을 통해 기호 지역의 문화를 상대적으로 먼저 수용할 수 있었던 통로의 위치에 있었다. 내성천을 따라 이어지는 백과적 학문의 경향은 예천 지역의 특별한 학문적 특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²⁸⁾

예천 용문면 죽림리(대수)에서는 權文海(1534-1591)가 단군에서부터 당대에 이르는 다양한 지식 정보를 운서의 운에 따라 항목을 설정하여 백과적으로 편찬한 『大東韻府群玉』을 편찬하였다. 조선전기예 유서의 형태에 근간하여 가장 체계적으로 자신 시대의 문물을 정리한 것이다.

권문해의 『대동운부군옥』은 번역과 원전 DB가 구축됨에 따라 문학, 역사, 자연학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03년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에서 완역하였다.²⁹⁾ 백과사전으로서의 위상에 대한 연

28) 이와 관련하여 예천박물관에서는 예천에서 나온 백과사전을 종합적으로 다룬 『예천의 기록문화와 백과사전』(예천박물관편, 민속원, 2022)을 펴냈다.

구나 문학 분야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편이나 역사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빈약하다. 향후에는 16세기가 이룩한 문화적 업적을 과시하면서 편찬된 『대동운부군옥』은 권문해가 가진 과거와 현재를 통괄하여 이해하려는 백과적 역사관의 산물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5) 예천 용문면 금당실에서는 朴周鍾(1813-1887)이 사찬의 백과사전인 『東國通志』, 학술 명언집인 『勉學類鑑』 등 백과적 저술을 편찬하였다.³⁰⁾

『동국통지』는 우리나라 문물 백과사전으로, 1868년에 쓴 편찬자의 서문이 있다. 『동국통지』는 『漢書』의 10志를 모방해 天文, 五行, 律曆, 地理, 祭祀, 禮樂, 兵衛, 刑法, 食貨, 藝文의 10지에 學校, 選舉, 百官, 輿服 4지를 더해 14지로 편성하고, 33편으로 구분해 전 24권 17책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典章과 법도, 문물과 제도의 기원과 변천 과정을 자세히 적어놓았다. 이 책은 개인이 국가적 문물과 제도를 모두 통괄하여 정리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지방 지식인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생을 예천 지역에 살았던 인물이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³¹⁾ 그런데 『동국통지』에 대한 연구는 각 분야별로 그 의의가 밝혀져야 할 것인데 「병위지」에 대한 박인호의 연구 외 아직까지 각 분야별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³²⁾

또 하나 주목되지 못하는 것은 박주종의 『勉學類鑑』이다. 『면학유감』은 여러 성현과 송·명 先儒들의 격언이나 지론 가운데 학문에 관련 있고 실용에 절실한 것을 분류해 실어 후대 학자들이 항상 깨닫고 반성하는 자료로 삼도록 한 격언집이다. 1872년 박주종이 쓴 서문이 있

29) 권문해, 남명학연구소 경상한문학연구회 역주, 『大東韻府群玉』, 소명출판, 2003.

30) 박주종, 『東國通志(上, 中, 下)』, 大學社, 1986; 박주종, 『勉學類鑑』, 太學社, 1986.

31) 박인호, 「박주종 - 조선후기 백과전서학의 발전과 지방 지식인」, 한영우선생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엮음, 『한국사인물열전』 3, 돌베개, 2003.

32) 박인호, 「19세기 중반 동국통지 병위지의 편찬과 자료적 성격」, 예천박물관 기획, 『예천의 기록문화와 백과사전』, 민속원, 2022.

어 이 시기에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형태면에서는 理氣, 性情, 存心, 進學, 擇善, 檢身, 懲忿, 窒慾, 篤倫, 謹禮, 慎言, 謙讓, 廣量, 安命, 治家, 教子, 樹德, 惜福, 慮患, 攝生, 交友, 科舉, 當官, 名節, 濟民, 折獄의 각 주제별로 관련된 자료들을 뽑아 편집했다.

6) 예천 하리면 대제동(큰맛길)에서는 朴周大(1836~1912)의 활동도 주목이 된다. 박주대의 백과적 학문은 문집인 『羅巖遺稿』을 비롯한 저술에서 잘 드러난다. 미산가에 남겨진 서적을 보면 다방면에 관심을 가졌던 학자였다.³³⁾ 특히 미산가에는 유서인 『國朝典故』³⁴⁾와 중국사를 축약한 『歷代史要』³⁵⁾가 남아 있다. 이는 박주대가 필요에 의해 필사해 둔 것이지만 백과적 학문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는 필사본이다.

7) 예천에 입향한 흥해 배씨 출신의 裴象鉉(1814~1884)은 『한서』 10지를 본 따 우리나라 문물을 정리한 『東國十志』를 편찬하였다. 최근 완역본이 나왔다.³⁶⁾ 이 역시 개인이 국가의 제도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으며, 그것이 예천 지방에서 나왔다는 점은 주목이 된다.

8) 병성친을 끼고 있는 상주시 외답동에 살았던 息山 李萬敷(1664~1732)가 편찬한 『道東編』은 『성리대전』의 조선적 해석서라고 할 수 있다.³⁷⁾ 고창의 頤齋 黃胤錫(1729~1791)은 이와 유사한 『理藪新編』을 저

33) 朴周大의 자는 啓宇 호는 菊田이며, 渚上先生으로 불리었다. 아버지 味山(朴得寧)과 荷叟翁에게서 수학하였다. 저서로는 『羅巖遺稿』(驪江出版社, 1986 영인), 『羅巖隨錄』(國史編纂委員會, 1955), 『文蔭縉紳譜』(영종계, 民族文化社, 1984 영인), 『渚上日月』, 『羅巖別稿』, 『四書解集選』 등이 있다.

34) 『國朝典故』, 영남대학교 도서관본(古味 991.1-국조전). 필사본 3책.

35) 『歷代史要』, 영남대학교 도서관본(古味912-역대사). 영남대본은 전 75권 33책 가운데 卷1-2, 5-6, 10-20, 25-37, 40-52, 55-65, 68-75이 남아 있는 낙질본이다. 上古時代부터 明까지 편년체 야사서이다. 동일 제명의 연세대본(고서 용재 380-1)에는 錦城林象鼎德重鉸라는 인이 있다. 『林氏史統』 표제 명을 가진 장서각본(K2-130)은 75권 35책의 완본이며, 임상정의 서문이 남아있다.

36) 배상현, 김기엽 역, 『국역 동국십지』, 한국국학진흥원, 2022.

술하였다. 이황, 이이로부터 조선 학자들에 의해 『성리대전』의 각 부분에 대한 보완과 저술이 이어지면서 『성리대전』은 조선의 학자들이 도학과 성리학을 연구하고자 할 때 집필 방향을 정하는 원 자료였으며, 이에 대해 무수한 저술이 파생되어 나왔다. 『도동편』은 영남 북부 지역에서 나온 조선 성리학에 대한 백과적 정리서라고 할 수 있다.

2. 간략화된 형태의 역사서 편찬

서울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였던 강안 지역에서는 기존의 책을 일정한 형태로 재편집하거나 축약하는 형태의 책이 크게 유행하였다. 특히 史部의 편찬물에서 그러한 특징이 일정한 경향성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역사서는 간략화하여 정보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백과적 편찬물의 일부로 간주해도 될 것이다.

1) 봉화 법전에 거주하였던 여러 명문 집안의 인물 가운데 법전 풍정리에는 松月齋 李時善(1625-1715)이 있다. 문집으로 『송월재집』이 전한다.³⁷⁾ 이시선의 본관은 전주이며 태종의 아들인 은녕군의 자손이다. 안동 유곡에서 태어나 봉화 풍정리에서 일생을 보내었다. 봉화에서 은거 생활을 하면서 성리학뿐만 아니라 노장에까지 관심 영역을 넓히고 있었던 이시선의 학문에 대해 이익은 <송월재집서>에서 이시선의 학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학문을 강론한 경우에는 궁구하여 깊숙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예전의 투식에

37) 李萬敷, 李昌燮 譯, 『道東編：孔子 東方에 오다』, 木蘭文化社, 1992.

38) 『송월재집』은 손자인 李仁求·李仁實·李仁山이 가장되어 오던 하화편과 다른 시문을 수집하였으며, 현손인 李命顯이 1748年 訥隱 李光庭에게 編次의 자문을 거쳐 淨稿本을 만들었다. 목판본은 대체로 정고본을 바탕으로 18세기 후반에 목판본 7권 3책으로 간행하였다. 권수에는 李光庭과 丁範祖의 서가 있다. 권말에는 이익이 1763년에 쓴 발이 있다. 『松月齋先生文集』(하화편), 송월재선생문집발간추진위원회, 2013.

빠지지 않고 이따금 發明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 治道를 논한 경우에는 王道를 높이고 霸道를 천시하여 간편한 것을 따르고 功을 숭상하는 비무함을 없애려고 힘썼는데, 반드시 성현의 가르침에 의지하였다. 六經과 四書의 내용은 사방과 네 구석이 서로 연결되었고, 짙은 글과 얇은 글은 古色이 창연하였으며, 東序와 西房은 구슬과 자개가 뒤섞여 있는 것처럼 화려하였다. 그리고 夏나라의 碑文이나 周나라의 石鼓文처럼 간혹 난삽하여 읽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의미의 얇고 깊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心眼으로 먼저 놀라왔다.³⁹⁾

이익은 이시선의 학문에 대해 창의성과 함께 여러 학문의 특징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문집에 남겨진 이시선의 학문적 성취 외에 그가 특장을 발휘한 것은 역사학 분야이었다. 그는 중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한 『歷代史選』을 편찬하였다. 『역대사선』은 삼황오제로부터 명대까지의 역사를 편년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⁴⁰⁾ 증선지의 『십팔사략』과 강지의 『통감절요』가 오랫동안 역사의 학습서로 활용되어 왔으나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여러 책에서 필요한 내용을 골라 묶은 것이다. 이시선은 “많이 알려고 하면 역대의 사서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역사란 고금의 일을 통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로 권징을 통해 자신의 덕을 키우는데 필요한 것이다”고 하였다.⁴¹⁾ 역사에서 이루어진 ‘勸懲’을 알아 올바르게 역사를 바라보는 의식을 갖도록 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서술에서는 단순한 사건 나열을 피하고 한 사건의 전후 맥락을 전달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한편 서술에서는 중국의 역사에 시기 구분의식을 도입하여 서술하였다. 중국의 역대 왕조를 「太古紀」, 「皇帝紀」, 「三代紀」, 「春秋紀」, 「周紀」, 「列國紀」, 「秦紀」, 「楚漢紀」, 「漢紀」, 「東漢紀」, 「蜀漢紀」, 「西晉紀」, 「東晉紀」, 「南北朝紀」, 「隋紀」, 「唐紀」, 「五代紀」, 「宋紀」, 「元紀」, 「明紀」로 구분하였다. 중국의 여러 원 자료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紀로 구분한 것은 『자치통감』의 구분 방식을 가져온 것이다. 紀 설정에서 ‘춘추

39) 『성호전집』 권50, 「序」, <송월재집서>. 한국고전종합DB

40) 이경록, 「해제」, 『(國譯) 歷代史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9.

41) 『역대사선』, <史選序>. “如求多識 莫如歷代史 史非止通古今 實勸懲以蓄德也”

기」를 두어 周 平王에서 考王까지 다룬 점, 「열국기」를 두어 赧王이 죽은 후 東周 文公 2년부터 열국에 배치하고 하한을 秦 통일 이전까지로 한 점, 「초한기」를 두어 楚 義帝 熊心 원년에서 漢 통일 이전까지로 한 점, 晉吳를 두어 魏 元帝가 晉王에게 선위하여 晉과 吳가 병립한 시기를 표시한 점 등은 특징적이다.

정통에 대한 생각은 『자치통감강목』에서 가져왔다. 그러나 蜀漢을 앞세워 魏를 비정통 주로 표시하거나, 晉 武帝가 吳를 멸망시켜 정통이 되기 전을 晉吳로 부기하거나, 남북조의 서술에서 송, 제, 양, 진의 남조를 주로 하면서 북조의 魏, 東魏·西魏, 北周·北齊는 附記하거나, 元과 같은 비정통 왕조에 대한 서술에서는 최소한의 분량으로 기술하는데 그치는 등은 이 책이 보여주는 특징적인 정통 사관이다.

『역대사선』은 후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간행이 시도되었다. 규장각본에 의하면 책의 마지막에 ‘崇禎紀元後五乙巳十一月 日 七代孫夏弼 藏于太白山城’라고 적어 책이 필사 장정된 시기를 밝히고 있다. 최근 국역본이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간행되었다.⁴²⁾

『역대사선』의 간행 노력과 관련된 또 다른 역사 책이 『史補略』이다. 『사보략』은 『역대사선』 가운데 상고기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출판한 것이다. 「太古紀」, 「皇帝紀」, 「夏紀」, 「商紀」, 「周紀」로 구분하였으며, 「주기」의 하단은 考王이다. 사마광이 『자치통감』에서 三晉이 제후로 인정을 받은 周 威烈王부터 기술한 것을 기준 삼아 그 이전 시기를 정리한 것이다. 『사보략』은 규장각과 장서각 디지털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2) 영주에서는 吳澐이 1606년 『東史纂要』를 편찬하였다. 이 『동사찬요』는 내용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 번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보충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운이 편찬한 『동사찬요』를 보고서 유성룡은 선조에게 한 본을 봉진하였다. 그 후 이 봉진본을 바탕으로 1609년 “己酉雞林府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활자본을 간행하였다. 이 책

42) 李時善, 이경록 외 옮김, 『(國譯) 歷代史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9.

은 오운이 1609년 1-2월 사이 경주부윤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8권으로 간행한 것이다. 그 후 이를 수정하여 11권으로 만들었는데 8권본 판목에 새로 권1상, 권1중, 권1하, 권2상의 4권만 별도로 만들어 간행하였다. 1614년에는 한백겸의 지적에 따라 다시 「지리지」를 보충해 넣어 12권본으로 만들어 영주에서 간행하였다. 그 뒤 후손들에 의해 1908년 영주 삼우정에서 16권본이 간행되었다. 『동사찬요』는 조선시기에 나온 역사 책 가운데 증보와 재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 사서이다.⁴³⁾ 오운의 『동사찬요』에 대해서는 사학사적인 측면에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편 영주 지역에서는 사략형 역사서의 출판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충북 문의 출신인 柳希齡이 1524-1529년 榮川 군수를 지낼 때 『標題音註東國史略』 초판본을 목활자로, 1516년(중종 11) 재판본을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申旻(1613-1653)이 편찬한 『再造藩邦志』도 말미의 간기에 “癸酉仲秋以活字印行于榮川郡”이라고 적혀 있어 1693년(숙종 19) 영주에서 활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주에서 발간된 이러한 사략형 사서는 후일 경상도 지역의 역사서 편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풍산 가일마을에서는 權渠(1672-1749)가 『中國古今歷代沿革之圖』를 편찬하였다. 권구는 서애 유성룡의 후손인 유원지의 외손자이다. 학문적으로는 상주를 중심으로 하회, 가일마을, 오미동 등이 동일한 권역에 속하는데 이 지역의 학문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외부의 저술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유성룡의 『讀史蠡測』을 필두로 이러한 경향이 이어졌는데 권구가 연표 방식으로 역사를 정리한 것이 『중국고금역대연혁지도』이다. 권구의 연혁도는 경종 연간에 작성되었으며, 후에 그의 증손인 權彪와 외손인 柳一春에 의해 목판으로 간행되어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⁴⁴⁾ 간행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

43) 박인호, 「동사찬요에 나타난 오운의 역사지리인식」, 『퇴계학과 유교문화』 40,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7; 고령대가야박물관 기획, 『죽유 오운의 삶과 학문세계』, 역락, 2007.

나 1797년(정조 21) 유일춘에 의해 『屏谷集』이 간행되었으므로, 이 때 문집과 같이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연혁도는 한·중 양국의 역대 국가와 이민족의 연혁을 한 장의 전지에 도표형식으로 작성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중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기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외 북호·일본·안동연혁을 부기하고 있다. 중국은 伏羲에서 淸까지, 우리나라는 단군조선에서부터 조선 숙종까지 정리하였다. 정통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계승은 쌍행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참국과 잡국은 단선으로 표시하였다. 북호는 단선으로 표시하였으나, 중국과 우리나라는 쌍행선으로 표시하여 은연중에 정통국가임을 보이고 있다.

각 국가의 기록에는 동그라미나 네모 안에 국가 명을 적고, 그 하단에 개국년대, 도읍, 시조의 출자 및 왕조의 치세기간 등을 간략히 부기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중국과 동국의 연혁 외에 별도의 사각형 지면을 통해 年紀를 표시하거나 東方雜國, 日本沿革, 北胡沿革, 安東沿革 및 周諸侯, 西漢末僭亂, 東漢末僭亂, 兩晉雜國, 隋末僭國 등이 부재되어 시각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4) 풍산 상리마을에서는 李惟樟(1625-1701)이 『東史節要』를 편찬하였다. 이유장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번잡한 것을 잘라내어 3권의 사략형으로 편찬하였다.⁴⁴⁾ 이유장은 춘추의 의리정신을 실천하려던 인물로 이 책의 저술은 병자호란 직후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춘추와 의리적 관점을 우리 역사에 적용한 것이다. 『동사절요』에 대해서는 신라 중심 사관, 고려에 대한 중시 경향, 무신 정권 이후의 고려 전개에 대한 비판적 시각, 『표제음주동국사략』과의 관련성 등을 지적한 민현구의 연구가

44) 박인호, 「중국고금역대연혁지도에 나타난 권구의 역사인식」, 『조선시대사학보』 4, 조선시대사학회, 1998; 이해영 외, 『병곡 권구의 학문과 사상』, 드림, 2017.

45) 『고산선생문집』, 전3권, 이준돈 발행, 1996. 책1(天) 고산선생문집, 책2(地) 二先生禮說. 東史節要, 책3(인) 春秋轉註. 『고산집』은 부산대 점필재연구소에서 국역본을 내었다.

유일하다.⁴⁶⁾

『동사절요』의 권1은 조선(단군, 기자, 위만), 삼한(마한, 진한, 변한), 신라, 고구려, 백제, 부(가락국, 태봉, 후백제), 고려, 권2는 고려, 권3은 고려의 전형적인 사략형 사서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다른 사략형 사서와는 달리 고려편이 2권에 달해 비중이 높게 구성되어 있다. 삼국의 서술은 병립하지 않고 신라, 고구려, 백제 순으로 기술하였는데 신라는 경순왕까지 적었다. 기술순서는 왕대별 편년의 순서로 서술하였다. 부속 국가로가락국, 태봉, 후백제를 다루었다. 형태면에서 보면 전형적인 사략형 사서이다.

내용면에서 본다면 인용 문헌을 별도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동국통감』을 절약한 것이다. 글의 중간에 쌍행 각주를 두고 있는데 일부 설명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리를 비정하거나 지명을 주석한 것이다. 지리비정을 보면 우발수를 영변에, 엄체수를 압록 동북에, 졸본을 성천에, 하남위례성을 직산에 비정하는 등 대체로 상고기의 반경이 한반도 내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⁴⁷⁾ 고려 말 기술에서 우왕과 창왕을 기술하면서 廢王과 後廢王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신우, 신창으로 표시하던 조선 전기의 일반적 분위기와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역년을 중시하여 각 국가별 역년을 말미에 적고 있다.⁴⁸⁾ 이는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는 이유장의 학문적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46) 민현구, 「동사절요에 보이는 역사인식」, 『공자학』 12, 한국공자학회, 2005.

47) 阿斯達山=九月山, 藏唐京=文化, 箕子 兔山=平壤 城北, 盧綰 沮水=大同江, 金馬=益山, 王儉城=平壤, 樂浪=平壤, 臨屯=江陵, 玄菟=咸鏡, 眞番=雪縣, 東沃沮=咸境道, 華麗·不耐=義城, 伊西國=清道, 尸山=寧海, 居漆山=東萊, 悉直=三陟, 押督=慶山, 召文國=義城, 古自=固城, 史勿=泗川, 骨浦=合浦, 竭火城=蔚山, 甘文=開寧, 碧骨池=金堤, 明活城=慶州, 比列城=安邊, 捺己=榮川, 古陞=安東, 進乃=錦山, 沙梁=忠州, 牛岑=牛峯, 青海=莞島, 優渤水=寧邊, 淹滯水=鴨綠 東北, 卒本川=成川, 荇人國=太伯山東, 滄海=江陵, 負兒嶽=楊州 角山, 彌鄒忽=仁川, 河南慰禮城=稷山, 龜旨峯=金海, 酒泉=原州屬縣, 奈城=寧越, 鐵園=鐵原, 斧壤=平康, 加恩=聞慶屬縣(지리 비정은 -, 지명 주석은 =로 표시함).

48) 단군(傳世 1500년), 기자(전세 928년), 위만(전세 88년), 신라(55왕 992년), 고구려(28왕 705년), 백제(30왕 678년),가락국(歷 491년), 태봉(立國 28년), 후백제(입국 45년), 고려(32왕 475년).

한편 절의의 신하로 정몽주, 길재 외에 徐甄, 李養中, 金澍, 元天錫의 사적을 고려의 말미에 특별히 적은 것은 고려 말 절의파 인사들을 추송하려는 영남 지역의 분위기에 따라 『대동운부군옥』, 『동사찬요』, 『회찬여사』, 『해동잡록』 등에서 이들 인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강조하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

5) 내성천의 예천 용문면 구계리에서 근대기 金庭植(1862-1928)에 의해 단군조선에서 순종까지 다룬 『東書彙纂』이 나왔다. <신수서책목록>⁴⁹⁾에서는 11책으로 적시되었으나 현재 10책으로 장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1책을 10책으로 장정한 것으로 보인다. 단군-삼국 3책(수, 화, 목), 고려 2책(금, 토), 조선 5책(인, 의, 예, 지, 신), 총 1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군조선, 기자조선, 삼한, 위만조선, 삼국, 신라, 고려, 조선시대, 대한제국까지 편년체로 기술하였다.

삼국에 적용된 연기표시는 다른 사략형 사서에서 보이지 않는 삼국의 각 왕대별 편년 순서가 적용된 독특한 기술 방식을 취하였다. 문무왕 신라 통일 이후는 신라, 고려, 조선의 각 왕대별 편년의 순에 따라 기록하고 있다. 왕조별로는 존속 연수를 별도로 기록하였다.

책 수에서는 단군조선(단군), 기자조선(기자, 기부, 기준), 삼한(마한, 진한, 변한), 위만조선, 사군, 이부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김정식의 특징적인 주장을 요약하면 단군의 재위 1018년에 대해 상세의 신성한 이들은 후세와 다르므로 전세로 인정한다고 하였으며,⁵⁰⁾ 기자의 朝周에 대해 부정하였다.⁵¹⁾ 또 箕否 때 진시황에 복속되었으며 노관의 공격으로 패수를 경계로 하였을 때 패수=대동강 주장에 대해 비판하였다.⁵²⁾ 사군

49) 金庭植, 『古史隨錄』, 2책, 예천박물관 소장. <新修書冊目錄>에 의하면 東書彙纂 11책, 鮮史總略 4책, 啓蒙要訣 4책, 譜學通編 5책, 四禮輯錄 1책, 喪祭輯畧 1책, 喪禮抄 1책, 野林世稿 10책, 家史攷證 3책, 鄉飲禮輯 1책 등이 기술되어 있다.

50) 『동서회찬』 책1(수). “上世神聖之人 年歲與後世不同 (中略) 檀君享壽千餘 亦或無怵 (中略) 而後人臆見有難懸 斷其不必然 故今從舊史”

51) 『동서회찬』 책1(수). “四年壬午 以素車白馬朝周 作麥秀歌 按周書六傳 以朝周作歌爲微子事”

의 위치 가운데 진번의 삼현에 대해 함경도 이북 藩胡의 땅으로 비정하는 독특함을 보이고 있다.⁵³⁾

삼국의 역사는 『삼국사기』를 기반으로 신라, 고구려, 백제의 각 왕대별로 편년의 순서로 적는데 연기 표시는 신라, 고구려, 백제의 왕별 연기를 적고 이어 간지를 적고 있다. 삼국의 순서는 해당 왕대 기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기사의 왕을 앞세웠다.

책 화는 신라 지증왕, 백제 무령왕, 고구려 문자명왕에서부터 다루었다. 책 목은 신라통일 이후 문무왕 10년에서 시작하는데 중국 당 황제의 연기를 병기하였다. 경순왕 9년 을미 신라 멸망까지 기술하였다.

책 금은 고려 태조 19년 병술에서 시작하였다. 고려부터는 일본 천황의 연호를 병기하고 있다. 책 토는 고려 원종 원년에서 시작하였다. 책 인은 조선 태조, 책 의는 단종, 책 예는 명종, 책 지는 광해왕, 책 신은 현종에서 시작하였다. 대한제국기의 고종과 순종은 황제로 기록하였으며, 1897년 황제위에 즉위하면서 광무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순종은 신황제로 표시하면서 융희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⁵⁴⁾ 경술년의 국치일까지 기록하였다.

이외 김정식의 저술로는 야사를 모은 『鮮史總略』 천, 지, 인 3책이 있다.⁵⁵⁾ 천은 炊沙 李汝籲의 기록, 지는 洪是相의 疏稗錄의 기록, 인은 朴夏源의 기록에서 초략하였다. 지에는 부록으로 權正沈의 사적을 적고 있다. 이것도 역사적 사실을 간략하게 기술한 것의 하나이다.

6) 이안천을 끼고 있는 상주시 함창읍 여물리에서 태어난 洪貴達(1438-1504)은 權健(158-1501), 成倪(1439-1504) 등과 함께 『歷代明鑑』을 편찬하였다.⁵⁶⁾ 이 책은 중국의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을 바탕

52) 『동서회찬』 책1(수). “若以涇水爲朝鮮之大同江云 而則燕國必自遼西 俺有遼東遠踰大遼河 涉鴨綠江 以平安北道爲韓所領則 可爲境於南道 豈其然乎”

53) 『동서회찬』 책1(수). “雪縣爲邑治 今咸鏡以北 藩胡所居之地”

54) 金庭植, 『東書彙纂』, 10책, 예천박물관 소장.

55) 현재 3권만 남아 있으나 家藏의 <신수서책목록>에는 4책으로 기록되어 있다.

56) 문경시 영순면 울곡리에 홍귀달 부부 묘가 있으며 묘 아래에는 신도비(경북유형문화

으로 하면서 조선 초기에 편찬된 『제왕명감』, 『후비명감』을 포함하여 역대의 군주, 후비, 신하 320인을 27권에 총정리한 것이다. 인물의 선정과 내용의 가감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였다. 현재 광산 김씨 예안파 종가 전적으로 남아있으나 일부 낙질이다. 권1-권4 1책은 대구가톨릭대 도서관에 있다.⁵⁷⁾ 이에 대한 서지학적 소개는 박문열의 두 논문이 있다.⁵⁸⁾

7) 영강을 끼고 있는 문경 영순면 울리에서는 홍귀달의 후손이었던 洪汝河(1620-1674)가 기자에서 신라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강목의 형태로 편집한 『東國通鑑提綱』과 기전체 형식으로 고려 역사를 재정리한 『彙纂麗史』를 편찬하였다. 홍여하의 신라정통론이 주목되면서 다양한 사학사 연구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김현영의 주도로 두 책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졌다.⁵⁹⁾

3. 지역 인물에 대한 관심

조선후기 중양에서는 전국 단위의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명신과 명현 관련 일화를 모은 명신록류나 인물고류가 대표적이다.⁶⁰⁾ 이러한 양상은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양에서 『영남인물고』를 편찬하여 경상도 지역의 인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지만⁶¹⁾ 지역에서도 지

재 122)가 있다.

57) 洪貴達 等撰, 『歷代明鑑』 卷1-3, 8-27, 初鑄甲寅字本, 光山金氏 禮安派宗家 소장; 卷1-4,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58) 박문열,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역대명감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70, 한국서지학회, 2017.

박문열, 「역대명감의 찬집양상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71, 한국서지학회, 2017.

59) 김현영 외, 『국역 휘찬여사』, 민속원, 2012; 『역주 동국통감제강』, 경상북도 문화원 연합회, 2018.

60) 박인호, 「영정조대 인물서의 편찬과 역사학의 동향」, 권오영 외, 『영정조대 문예중흥기의 학술과 사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인물서의 편찬> 표 참조.

61) 이재두, 「1798년에 편찬한 영남인물고와 그 위상」, 『규장각』 58, 서울대학교 규장

역 선현을 추송하기 위한 전기류가 활발하게 편찬되었다. 지역에서 인물을 기억하는 방식은 사찬 읍지와 그 증보편 인물조에서의 인물 추가를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역 출신 인물에 대한 전문적 인물 사전이 출현하고 있었다. 필자 미상의 『해동명신행적』 혹은 주세붕이 편찬한 『東國名臣言行錄』, 유성룡이 편찬한 『東國名臣言行錄』의 책명이 보인다.⁶²⁾ 이러한 인물서 편찬의 전통이 이어지면서 조선후기에는 강안 지역에서 보학서가 활발하게 편찬되었다.

1) 예천 權鼈(1589~1671)의 『海東雜錄』은 부친인 권문해의 『대동운부군옥』에 기재된 인물을 바탕으로 각 시대별 인물 사전을 편찬하였다. 『해동잡록』의 편찬에는 영남 지역 선비의 인물 인식이 투영되어서 절의, 성리학, 효행 등에 관련된 인물을 높이 평가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⁶³⁾

2) 문경 율리 출신의 홍여하는 각 씨족의 연원과 계보에 대한 『海東姓苑』을 지었다. 홍여하의 행장에는 이에 대한 소개가 있다.

또 일찍이 氏族에 관한 학문에 마음을 다하여 책 한 권을 짓고 『海東姓苑』이라 명명했다. 그 조상이 갈라져 나온 것을 소급함엔 먼 三代까지도 끝까지 궁구하여 기록하지 않음이 없었고, 그 후이 해당되는 것을 고구함엔 五聲의 나뉘도 분별하여 매어두지 않음이 없었으며, 그 貫鄉이 시작됨을 미룸엔 멀리 중국에서부터 가까이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分派를 끝까지 찾아 수록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각각 그 보譜를 얻어서 군주를 받드는 뜻과 조상을 공경하는 정성이 또 그 가운데서 나란히 실천하게 했으니, 대개 또한 족속을 유별하고 사물을 분별하는 도이다.⁶⁴⁾

각, 2021.

62) 오운, 『동사찬요』, <인용서목>; 김휴, 『해동문헌총록』, <인용서목>.

63) 박인호, 「해동잡록에 나타난 권벌의 역사인식」, 『퇴계학과 유교문화』 52,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64) 『목재집』 권11, 「附錄」, <贈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行通訓大夫司諫院司諫府君行狀(洪大龜)>.

현재 전하지는 않으나 각 씨족의 계보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17세기 후반 북부 경상도의 학문적 영향력은 영해의 이현일(1627-1704)과 상주의 홍여하(1620-1674)가 양분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상주, 문경을 중심으로 한 학문적 동향과 인물과의 연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예천 대저리의 朴周大(1836-1912)는 『文蔭譜』와 『縉紳八世譜』를 편찬하였다. 『문음보』·『진신팔세보』는 예천, 상주,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각 가문의 문음과 과거 합격자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⁶⁵⁾

4) 예천 용문면 구계리의 金庭植(1862~1928)은 『譜學通編』 4책을 편찬하였다.⁶⁶⁾ 지역의 유력 가문을 중심으로 성씨별 가계와 인물을 계보도로 정리한 것이다. 지역의 서인계 인물 가계도 빠짐없이 정리하고 있다. 표지에 문중의 분과를 적어 두고 있는데 1책에 25문중, 2책에 53문중, 3책에 85문중, 4책에 42문중이 기록되어 있다. 기술은 선대부터 각 파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는데 부자와 형제 관계를 주로 밝혔다. 별행의 정보는 소과, 문과, 관직, 증직, 호 등을 기술하였다.

5) 상주 이안천 외서면 우산리의 鄭道應(1618-1667)은 현존하는 명신언행록류 가운데 이른 시기에 『昭代名臣行蹟』을 편찬하였다. 정도응은 명신언행록의 형태이지만 우리나라 인물을 다룬 『소대명신행적』을 전집 6권 3책, 후집 4권 2책, 별집 2권 1책, 외집 4권 2책, 합 16권 8책으로 구성하여 완성하였다. 정도응은 유성룡이 『국조명신언행록』을 편찬하려고 하였던 정신을 이어 편찬하였으며, 친우였던 洪汝河의 도움이 있었다. 이 책은 전집 145명, 후집 74명, 별집 22명, 외집 30명으로 총 271명을 수록하고 있다. <전집>에는 유관에서 임숙영에 이르기까지 조선개

65) 朴周大, 『文蔭縉紳譜』, 영종계, 민족문화사, 1983. 난삽한 원고를 후손인 박정로가 정서하여 간행한 것이다.

66) 김정식, 『보학통편』, 필사본 4책, 예천박물관 소장.

국에서 인조대까지 인물을 다루고 있다. <후집>에서는 사육신·생육신, 왜란과 호란 때 의병장 등 절의인사들을 수록하고 있다. <별집>에서는 경연에서 한백겸에 이르기까지 주로 은일 인사, <외집>에서는 김숙자에서 정경세에 이르기까지 학자·제현을 수록하였다. 이후 조선에서는 다양한 국조명신록류가 편찬되었는데 정도응의 『소대명신행적』은 17세기 중반에 편찬되어 시기적으로 앞선다.⁶⁷⁾ 다만 이 책은 필사본으로 전하다가 1912년에 들어와서 간행되었으며, 최근 국역본이 나왔다.⁶⁸⁾

정도응은 『소대명신행적』에서 명신, 절의, 은일, 제현 등의 인물을 순서에 따라 수록하고 관련된 자료를 수록함으로써⁶⁹⁾ 주자가 『송명신언행록』을 통해 出處進退의 規範을 보이려는 목적⁷⁰⁾을 구현하고 있다. 정도응은 영남 남인 출신으로 정경세의 손자였으므로 대상으로 하는 인물도 대부분 남인 위주로 선정되고 특히 인물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 영남에서 나온 서적이라는 지역성을 띄어넘기 힘들다. 인용 자료 중에도 『일선지』, 『진양지』, 『단양지』, 『상산지』 등 지역에서 만든 읍지류와 지역 인물의 문집이 주로 인용되고 있다. 다만 상주 지역과 진주 정씨의 학문적 성향이 다른 지역의 남인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기호 지역에서의 학문과 교류가 넓어서 이이, 김장생 등 일부 기호학맥의 인물이 수록 인물로 선정되거나 서인계열 인사들의 자료가 인용되어 수록되었다. 이 역시 상주

67) 鄭道應編, 『昭代名臣行蹟』(국립중앙도서관), 鉛活字本, 1912. 5대손 鄭象履에 이르러 원본을 등출하여 16권 8책으로 만들었으나 필사본으로 남아 있다가 7대손 鄭喆愚 등에 의해 1912년 간행되었다.

68) 조빛샘 외 역, 『국역 소대명신행적』, 한국국학진흥원, 2023.

69) 정도응, 「서」, 『소대명신행적』. “然則今此名臣中 當抽出此一脈 以類編之 其他柳寬黃 喜鄭光弼諸公 當以相業 列於名臣之流 三足以下 又以隱逸附焉 則庶乎各從其類而不紊矣”

70) 정상리, 「발」, 『소대명신행적』. “粵在孝顯之世 我五代祖無忝齋先生編國朝名臣行蹟 卽朱晦庵宋朝名臣錄之意也”

정철우, 「발」, 『소대명신행적』. “於惟我無忝齋先生 以聰睿博雅之材 承襲愚伏先生家學之淵源 天人性命 靡不貫穿 尤深於國朝古史 廣詢博採 編成八冊 命名曰昭代名臣行蹟 其規模條例 一依朱夫子所纂宋朝名臣錄 而始自國初止于宣仁之朝 分類編次 以便記覽”

지역의 학문적 다양성의 한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주자의 명신언행록이 조선에 도입되면서 언행록류의 역사서술도 크게 유행하였다. 그 가운데 예천 출신의 鄭維一(1533-1576)은 중국의 송대 인종에서 흠종까지의 명현을 종합하여 『宋朝明賢錄』을 편찬하였다.⁷¹⁾ 이는 중국 명현록의 조선적 관점에서의 재정리라고 할 수 있다.

6) 인물 정리와 관련하여 특이한 것으로 영남 북부 강안 지역에서는 향리층에 의한 다양한 전기집이 편찬되었다는 점이다. 상주 향리가 지은 『尙山吏蹟』, 상주 향리 李震興(1731-1777)의 『掾曹龜鑑』, 상주 향리 李明九(1799-1874)의 『掾曹龜鑑續篇』 등이 나왔다. 또한 예천 향리 金麗昱·張大興 등에 의해 1790년 나온 『襄陽耆舊錄』, 안동 향리 權心度 등에 의해 1824년 나온 『安東鄉孫事蹟通錄』 등 중인들의 전기 집이 특징적으로 나온다. 이는 서얼의 전기집인 『葵史』가 대구에서 나왔듯이 강안 지역이 안동이나 예안 등지의 양반 별족이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던 지역과는 다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

VI.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전통시대 영남 북부 강안 지역에서의 학문적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시도로 이 지역에서 산출된 편찬물 가운데 백과적 경향을 가진 편찬물들을 정리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낙동강의 물류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던 조선 후기에 영남 북부 지역은 당시 문물의 중심이었던 기호 지역에 비해 문화적으로 지체 현상이 있었다. 이러한 지체 현상으로 인해 이 지역의 학문적 특성으로 복고적 혹은 은거적 측면이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체 현상은 새로운

71) 鄭維一, 『宋朝明賢錄』, 9책, 대구가톨릭대 소장. 박인호, 「문봉 정유일의 사환 활동과 인물 인식」, 『국학연구』 46, 한국국학진흥원, 2021.

문물을 창안하지는 못할지라도 외부의 문물을 수용하면서 간략하게 정리하거나 유형별로 정리하기 좋은 학문적 풍토를 이루었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이 이 지역의 학문적 편찬물에도 영향을 미쳐 백과적 경향의 저술이 다양하게 산출되었다.

이 지역은 북부로부터 내려와 남부에 내려오는 길목에 해당한다. 죽령, 조령, 화령 등 각종의 고개가 영남의 내륙과 남부를 고립시켜 퇴계학과 남명학이라는 독특한 학적 풍토를 낳았지만 한편으로 외부 지역으로 가는 고개를 끼고 있는 육상 교통망과 나루터를 통해 물류가 집산되는 강안 교통망은 영남 북부의 강안 지역을 다른 지역과 교류하는 접점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영남 북부 강안 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 의 편찬물에서는 會通性, 受容性, 融合性의 사상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유형별로 정리한 백과사전류, 간략하게 정리하는 사략형 사서, 다양한 형식의 보학서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 이 논문은 2025년 02월 1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02월 24일부터 03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03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1. 원전

- 權渠, 『屏谷集』, 屏山書院, 1797; 민족문화추진회, 1995; 權五根 역, 『국역 병곡선 생문집』, 魯東書社, 1976.
- 權渠, 『中國古今歷代沿革之圖』.
- 權文海 지, 남명학연구소 경상한문학연구회 역주, 『大東韻府群玉』, 소명출판, 2003.
- 金麗昱·張大興 지, 양양기구록국역간행회 편, 『國譯 襄陽耆舊錄』, 예천문화원, 1996.
- 金庭植, 『東書彙纂』, 10책, 예천박물관 소장.
- 金庭植, 『譜學通編』, 4책, 예천박물관 소장.
- 柳希齡, 『標題音註東國史略』, 계명대 동산도서관 초판; 한국학중앙연구원, 1985 인쇄본.
- 李萬敷, 李昌燮 역, 『道東編 : 공자 동방에 오다』, 목란문화사, 1992.
- 李時善, 이경록 외 옮김, 『國譯 歷代史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9.
- 李時善, 『松月齋先生文集』(하화편), 송월재선생문집발간추진위원회, 2013.
- 李惟樟, 『孤山先生文集』, 전3권, 이준돈 발행, 1996; 김홍영·정석태 옮김, 『국역 고산집』,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2020.
- 李瀾, 『星湖全集』, 여강출판사, 1984.
- 李宗岳, 서수용 역, 『국역 허주유고』, 임청각, 2008.
- 李宗岳, 『東史類篇』, 고려대 도서관 B3 A153 1.
- 李宗岳, 『虛舟 李宗岳의 山水遺帖 : 落水에 배를 띄워 놀다』, 이회문화사, 2003.
- 李重煥, 『擇里志』, 조선광문화, 1912.
- 李震興 편, 김정찬 역, 『연조귀감 : 향리의 사적을 담아 전하다』 1, 2, 민속원, 2017, 2018.
- 李震興 편, 『掾曹龜鑑(附 掾曹龜鑑續篇)』,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2.
- 林象鼎, 『歷代史要』, 영남대 도서관, 古味912.
- 林象鼎, 『歷代史統』,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50-84.

- 林象鼎, 『林氏史統』, 장서각 K2-130.
- 미상, 『國朝典故』, 국립중앙도서관, 古朝31.
- 미상, 『東事類編』, 국립중앙도서관, 한고조50-49.
- 朴承任, 權永大 역, 『國譯 性理類選』, 소고선생기념사업회, 2005.
- 朴承任, 박찬우 역, 『國譯 綱目心法』, 소수박물관, 2014.
- 朴周大, 『羅巖隨錄』, 國史編纂委員會, 1955.
- 朴周大, 『羅巖遺稿』, 驪江出版社, 1986.
- 朴周大, 『文蔭縉紳譜』, 民族文化社, 1984.
- 朴周鍾, 『東國通志(上, 中, 下)』, 大學社, 1986.
- 朴周鍾, 『勉學類鑑』, 太學社, 1986.
- 裴象鉉, 『東國十志』; 김기엽 역, 『국역 동국십지』, 한국국학진흥원, 2022.
- 申晔, 『再造藩邦志』, 규장각 규4494.
- 申景濬, 『旅庵全書』, 경인문화사, 1976.
- 魚叔權, 『攷事撮要』, 국립중앙도서관 및 일본 내각본고 필사본.
- 鄭道應, 『昭代名臣行蹟』, 1912; 조빛샘 외 역, 『국역 소대명신행적』, 한국국학진흥원, 2023.
- 鄭維一, 『宋朝明賢錄』, 9책, 대구가톨릭대 소장.
- 洪貴達 等撰, 『歷代明鑑』 卷1-3, 8-27, 初鑄甲寅字本, 光山金氏 禮安派宗家 소장, 卷1-4,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 洪汝河, 김현영 외, 『국역 휘찬여사』, 민속원, 2012.
- 洪汝河, 김현영 외, 『역주 동국통감제강』,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2018.
- 洪汝河, 『國譯 木齋集』, 경북대출판부, 2018.

2. 논저

- 김문식, 「조선후기 경남과 영남의 교류 양상 - 영양 주실의 한양조씨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15,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93-120쪽.
- 김상호, 「고지도로 본 상주의 역사문화」, 『경상도 상주』, 민속원, 2016.
- 김윤조, 「18세기 영남과 기호 소론가의 학문과 문학 교류」, 『한국학논집』 53,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3, 7-26쪽.
- 김학수, 「박승임의 학문적 지향과 16세기 영주지역의 ‘집단지성」, 『영남학』 70,

-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9, 217-260쪽.
- 김학수, 「안정복과 영남학인의 교유 - 18세기 중후반 ‘경남’과 ‘영남’의 지식문화적 교감」, 『장서각』 48,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 6-55쪽.
- 김학수, 『허주 이중악의 삶과 풍류』,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 민현구, 「동사절요에 보이는 역사인식」, 『공자학』 12, 공자학회, 2005, 255-276쪽.
- 박문열,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역대명감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70, 한국서지학회, 2017, 39-64쪽.
- 박문열, 「역대명감의 찬집양상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71, 한국서지학회, 2017, 27-54쪽.
- 박소희, 「17-18세기 상주지역 남인·노론계 서원의 인적구성 분석」, 『민족문화논총』 81, 2022, 89-124쪽.
- 박인호 「조선중기 제천지역 사족의 형성」, 『지역문화연구』 1, 세명대 지역문화연구소, 2002, 1-26쪽; 『제천지역사연구』, 이회문화사, 2005.
- 박인호, 「19세기 중반 동국통지 병위지의 편찬과 자료적 성격」, 예천박물관 기획, 『예천 지역 기록문화와 백과사전』, 민속원, 2022, 135-171쪽.
- 박인호, 「김휴의 해동문헌총록 편찬과 사학사적 의의」, 『경와 김휴의 학문과 활동』, 한국국학진흥원, 2024, 173-203쪽.
- 박인호, 「낙동강 강안 지역의 사부류 편찬과 역사학적 의의」, 『영남학』 83, 2022, 53-90쪽.
- 박인호, 「동사찬요에 나타난 오운의 역사지리인식」, 『퇴계학과 유교문화』 40,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7, 29-61쪽; 고령대가야박물관 기획, 『죽유 오운의 삶과 학문세계』, 역락, 2007.
- 박인호, 「문봉 정유일의 사환 활동과 인물 인식」, 『국학연구』 46, 한국국학진흥원, 2021, 7-46쪽.
- 박인호, 「박주종 - 조선후기 백과전서학의 발전과 지방 지식인」, 한영우선생정년 기념논총간행위원회 엮음, 『한국사인물열전』 3, 돌베개, 2003.
- 박인호, 「영남 지역 사부 고문헌 자료의 번역 현황과 과제」, 『영남학』 18,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0, 327-359쪽.
- 박인호, 「영정조대 인물서의 편찬과 역사학의 동향」, 권오영 외, 『영정조대 문예중흥기의 학술과 사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215-261쪽.

- 박인호, 「중국고금역대연혁지도에 나타난 권구의 역사인식」, 『조선시대사학보』 4, 조선시대사학회, 1998, 127-152쪽; 이해영 외, 『병곡 권구의 학문과 사상』, 드림, 2017.
- 박인호, 「해동문헌총록에 나타난 김휴의 학문세계」, 『선주논총』 9, 금오공대 선주문화연구소, 2006, 65-98쪽; 박인호 편, 『여헌학의 전개와 수용』, 보고사, 2010.
- 박인호, 「해동잡록에 나타난 권벌의 역사인식」, 『퇴계학과 유교문화』 52,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83-118쪽.
- 박인호, 「활재 이구의 시대인식과 사회활동」, 『활재 이구와 식산 이만부의 생애와 사상』, 문경시, 2013, 12-36쪽; 『조선시기 사상계의 동향과 현실인식』, 영한, 2023.
- 송석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의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79, 조선시대사학회, 2016, 483-515쪽.
- 안병걸, 「성호 이익의 퇴계와 영남에 대한 관심 - 권상일과의 편지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18, 한국실학학회, 2009, 409-446쪽.
- 예천박물관 기획, 『예천의 기록문화와 백과사전』, 민속원, 2022.
- 이경록, 「해제」, 『(國譯) 歷代史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9, 1-18쪽.
- 이수건, 「조선후기 嶺南과 京南의 제휴」,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 상, 벽사이우성교수정년퇴직기념논총간행위원회, 창작과비평사, 1990;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 이수봉, 「해제」, 『동국통지』, 태학사, 1986.
- 이연숙, 「17-18세기 영남지역 노론의 동향」, 『역사와 실학』 23, 역사실학회, 2002, 81-116쪽.
- 이재두, 「1798년에 편찬한 영남인물고와 그 위상」, 『규장각』 58, 서울대학교 규장각, 2021, 535-578쪽.
- 정우락 외, 『강안학이란 무엇인가』, 역락, 2023.
- 채광수 외, 「창녕성씨 청죽공파의 상주 정착과 노론계 원우 건립 활동」, 『조선시대사학보』 79, 조선시대사학회, 2016, 393-421쪽.

Abstract

Encyclopedic academic tradition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river side region of the Nak-dong River in northern Yeong-nam

Park, In-h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academic trends in the Nakdong River area in northern Yeongnam and to explain the encyclopedic academic trends that are characteristically revealed in combination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riverside region of the Nakdong River in northern Yeongnam has a natural geographical feature that highlights retro and secluded aspects, but it is also the region where culture from other regions was first introduced through the mountain passes.

From the perspective of cities gathering together, it is a remote area, but it is also the place where new cultures coming from Gyeonggi and Chungcheong were first collected. Also, in traditional times, this area was the place where various new cultures were first reached through waterways and land routes.

Accordingly, this region has a relatively free and open atmosphere, and academically it has a strong tendency toward communication and integration. As a result, encyclopedic studies, which introduce or summarize external cultures encyclopedically, have developed, and books that briefly convey external knowledge, such as compiling abbreviated historical books, have become popular. In addition, the study of compiling local figures has developed.

Accordingly, books published in this region are characterized by

encyclopedias organized by type, salyaghyeong saseo(abbreviated historical books), and various types of compilation of the Bohakse(the Genealogical Studies book)

keywords :

the Nakdong River, riverside area of the Nakdong River, Baekgaeonseohak(The encyclopedic studies), salyaghyeong saseo(abbreviated historical books), Bohakse(the Genealogical Studies book)